

7 **광주일보**
제17510호 2006년 7월 27일 목요일

19세 첫 선거 고교생에 식사·선물 향우회장 '선거법 위반' 징유 선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부터 만 19세에 투표권이 부여된 점을 노려 고교 3학년생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6일 5·31 선거를 앞두고 만 19세 고교생들에게 당시 화순군수 출마예정자 전도씨와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를 대납한 김모(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인정돼 선거운동원이 사법처리되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기업인 K회사 광주공장의 화순군 향우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 군수 출마예정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물품을 제공한 것은 공경하고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에 자신이 근무중인 회사로 실습 나온 고교 3학년생 50명에게 "격려한다"는 이유로 식사대접과 함께 8만8천원짜리 건강식품을 일일이 나눠주며 군수 출마 예정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광주·전남서 올 첫 사망

광주·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지난 18일 숨진 강모(52·목포시 산정동)씨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강경화를 앓고 있던 강씨는 지난 9일 꽃게무침을 먹은 뒤 다리 통증·구토·설사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지난 1979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11명이 발병해 4명이 숨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복어탕 먹고 1명 사망·1명 중태

26일 오후 2시에 완도군 노화읍 당서리 박모(여·64)씨 집에서 복어탕을 끓여 먹은 박씨가 숨지고 함께 복어탕을 먹었던 이웃 주민 김모(52)씨가 중태에 빠져 해남 우석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 생복을 잡아 이웃들과 함께 복어탕을 끓여 먹다 복어에 있는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도=정은기자 jechung@kwangju.co.kr

광양시-어민 '재첩 분쟁' 폭발

행정소송 이긴 어민 "합법화" 시위 市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불가" 하천 중점 기준...어업분쟁 '시금석'

광양만의 특산물인 재첩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광양시 어민회'(회장 김영현) 회원 1천여 명은 26일 오후 3시부터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첩 채취허가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어민들의 이날 시위는 광양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의 초점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의 어느 지점까지를 바다로 간주, 수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연관돼 있어 향후 관행어업 보

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어민 주장=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지난 94년 '간' 부두 건설과 관련, 광양읍 현월·초남·세풍지선 어민 240여 세대에 대해서만 59억4000만원을 보상했다. 광양읍 도월리 어민들은 그러나 보상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맨손어업 신고서를 광양시에 제출했으며, 시가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완료'를 이유로 불허하자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광양읍 서천 '만섬' 상류 주변 일원을 하천이 아닌 바닷가로 인정



▲재첩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백합목 재첩과의 민물조개. 지역에 따라 가막조개·경조개·재치 등으로 불린다. 5~7월이 제철로, 간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많이 요리된다.



광양지역 어민 1천여 명이 26일 광양시청 앞에서 재첩 채취 허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양=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 모녀 흥기 피살

26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S아파트 104동 4××호 김모(여·50)의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막내 딸 양모(15)양이 숨져 있는 것을 오모(여·3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출근길에 보육사인 김씨에게 딸긴 세살바기 딸을 퇴근 후 찾으러 갔

더니 딸은 울고 있고, 김씨 모녀는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흥기에 등을 찔린 채 거실에 숨겨 있었고, 딸은 목과 팔이 테이프로 묶인 채 큰 방에 숨진 채 누워 있었다. 경찰은 사체 경직 상태로 미뤄 4~5시

간전인 이날 오후 2~3시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김양은 광주 모 중학교 2학년생으로 여류방학을 맞아 집에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변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 모녀가 흥기에 찔린데다 도난 당한 물건이 없고 오씨의 아이는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량이 된 '서천'은 봉강면 조령리~광양읍 초남리까지 연장 20.4km로, 폭은 10~50m다.

◇판결=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선재성)는 지난달 22일 광양 도월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업지역이 하천으로 지정되어 내수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맨손어업 신고수리를 거부한 피고(광양시)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천 중 바다와 연결한 하류 구역인 기수(汽水, 염분의 농도가 0.5% 이상 30% 미만의 물) 지역은 만조 수위선부터 바다와 중복되며 어업행위도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업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광양만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2m 이상에 이르고 ▲원고와 신고한 어업이 갯벌에서 호미·갈고리·족집게 등 단순도구를 사용하는 맨손어업으로 수산업법상 신고어업 대상이며 ▲상당기간 동안 맨손어업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어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 입장=광양시는 해수부의 (하천에 대한) 유권해석과 지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국가소송법(제6조 및 13조)에 의해, 광주고검의 지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첩 채취 현황=광양읍과 진월·다압·옥곡·진상면 4개 마을 8천200여 세대 어민들은 광양만 지선에서 재첩·굴·바지락·게 등 수산물을 채취해왔다. 주 특산물인 재첩의 지난해 생산량은 695t으로 판매액은 97억원(30kg당 10만원 내외)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도월리의 경우 올 생산 목표는 40t(소득 1억 5천만원)이다. 어민들은 그러나 재첩 채취가 지금껏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아왔다.

/광양=김춘호기자 kco@kwangju.co.kr

무사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 가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관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용의자가 김씨 모녀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거나 배달원 등을 가장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지문 감식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TV화면을 분석하는 등 김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원한 관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891)



연세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음식 흡진 노숙자 35년만에 가족 상봉

성(나)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노숙자가 헤어질 가족들과 35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 ○-26일 목포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목포시 동명동 삼학도 내항에 닿은 내린 어선에 들어가 쌀과 음료수 등을 훔쳤다가 붙잡힌 김모(55·부산시 영도구)씨가 가족과 헤어질 지 35년 만에 남동생·여동생 등을 만나게 됐다는 것.

○...김씨의 가족 상봉을 주선한 목포 해경 수사과 김식모(56)경위는 "처음에는 '가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김씨가 나중에 '가족과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는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놔 가족들을 찾게 해 준 것"이라고 설명.

○-광주지법 목포지청은 애초 김씨가 일정한 주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했지만, 뒤늦게 김씨가 지청에서 가족과 헤어져 지난 25일 불구속으로 풀려져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도 상봉할 수 있도록 배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2006 소니 엔터테인먼트 상품모집

2006년 7월 27일 목요일

소니 광주전시판매점 ☎ (062)522-2000

소니 공식 시메스센터 ☎ (062)514-3000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닛

Airpass 있습니다

DOOR TO DOOR